

2017년 4월 21일

# 투자전략 Daily

## • 산업분석

통신 : 대규모 데이터 소비 시대가 열린다

## • 중화권 증시 동향

Risk off 완화, 중화권 증시 강세

##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티웨이홀딩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파트론 외 5개 종목

## • 산업/기업분석

반도체 소재, 보험, 운송,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한국항공우주

##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캘린더

전략 총괄 | 노근환 ☎ 3276-6226  
투자 전략 | 박소연 ☎ 3276-6176  
시황 분석 | 김대준 ☎ 3276-6247  
계량 분석 | 안혁 ☎ 3276-6272  
파생/ET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해외주식 | 백찬규 ☎ 3276-6280  
중국시장 | 최설화 ☎ 3276-6274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 3276-6184  
글로벌기업 | 정희석 ☎ 3276-6277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 3276-6191  
경제분석 | 박정우 ☎ 3276-6229  
채권분석 | 오창섭 ☎ 3276-6174  
해외채권 | 박승진 ☎ 3276-6560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14(금)	4/17(월)	4/18(화)	4/19(수)	4/20(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134.88	2,145.76	2,148.46	2,138.40	2,149.15
	등락폭	-13.73	10.88	2.7	-10.06	10.75
	등락종목	상승(상한)	207(0)	627(1)	478(3)	376(0)
		하락(하한)	592(0)	169(0)	298(0)	412(0)
	ADR	89.34	98.14	100.58	103.34	104.53
	이격도	10일	99.47	100.07	100.26	99.89
		20일	99.02	99.55	99.75	99.35
	투자심리	30	30	40	40	50
	거래량 (백만 주)	384	259	291	344	263
	거래대금 (십억 원)	3,408	3,750	3,971	4,893	4,927
코스닥	코스닥지수	618.24	629.47	634.73	635.99	635.8
	등락폭	-5.63	11.23	5.26	1.26	-0.19
	등락종목	상승(상한)	274(1)	935(3)	708(1)	540(3)
		하락(하한)	837(0)	177(0)	369(0)	546(0)
	ADR	100.35	102.18	103.04	103.26	103.24
	이격도	10일	98.88	100.66	101.35	101.46
		20일	100.04	101.69	102.33	102.30
	투자심리	60	60	70	70	60
	거래량 (백만 주)	700	599	914	814	868
	거래대금 (십억 원)	3,426	3,102	3,709	3,595	3,665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054.9	1,685.9	1,158.5	438.1	100.0	162.6	89.8	16.9	351.0	34.6
	매도	2,330.9	1,613.0	934.0	277.0	87.5	229.2	81.4	12.2	246.8	56.1
	순매수	-275.9	72.9	224.4	161.1	12.6	-66.6	8.4	4.7	104.2	-21.4
	4월 누계	50.8	-749.1	481.2	541.4	3.2	-162.8	23.4	-16.3	92.3	217.1
	17년 누계	-2,635.5	4,731.2	-4,466.7	-2,006.0	-431.9	-2,670.8	90.7	-370.5	921.7	2,370.9
코스닥	매수	3,281.5	223.2	149.6	33.2	14.6	38.3	17.9	2.9	42.8	20.4
	매도	3,259.1	231.7	154.7	56.7	13.8	30.1	20.3	2.2	31.6	29.2
	순매수	22.4	-8.5	-5.0	-23.5	0.8	8.2	-2.3	0.7	11.2	-8.9
	4월 누계	-262.3	273.0	394.3	60.9	50.3	75.8	79.1	12.7	115.6	-405.0
	17년 누계	1,403.6	324.7	-1,168.3	-274.7	-267.8	-378.7	-44.8	-22.8	-179.6	-560.0

## 통신 : 대규모 데이터 소비 시대가 열린다

2017년 Target KOSPI	2,260pt
12MF PER	9.28배
12MF PBR	0.93배
Yield Gap	9.1%P

- ▶ 통신주는 사드 영향없는 안전한 내수주, 수익 호전, 4차 산업혁명 기대감으로 2월 이후 랠리
- ▶ VR, AR, AI, IoT, 자율주행의 핵심 기반인 5G 진화로 데이터 소비 급증 예상
- ▶ 수익 및 배당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많으나 최근 규제 이슈는 향후 점검 필요

### ■ 15년 이후 2년만에 통신주 주가 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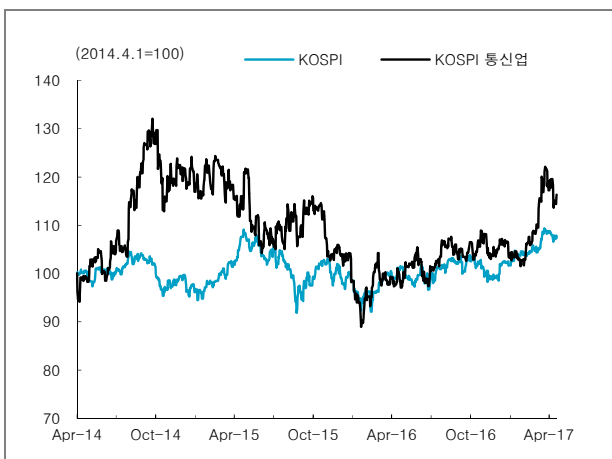
통신주는 2월 이후  
단기 급등

통신 3사의 주가가 2월 이후 크게 상승했다. 15년 이후 2년만에 찾아온 주가 랠리다. 최근 대통령 후보의 요금규제 공약 발표로 주가는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1월말보다 13% 높아졌다. 사드 이슈가 대부분의 내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통신주는 사드 영향이 없는 안전한 자산으로 부각됐다. 마케팅경쟁 완화로 수익성 호전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5G 서비스가 차세대 핵심 인프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세했다.

국내 통신주는 3년간 시장  
대비 outperform했으나  
해외 통신주는 더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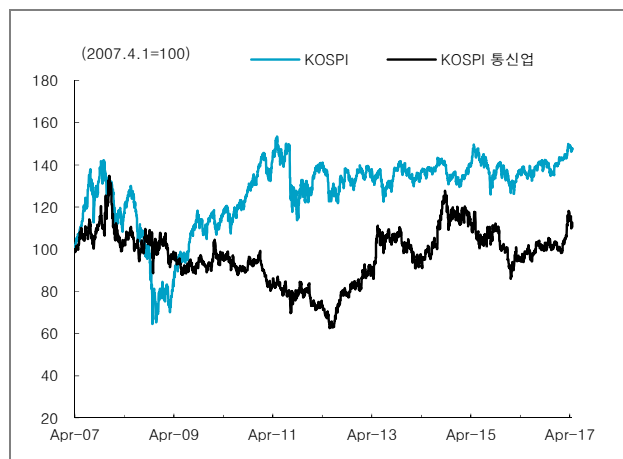
통신주는 지난 10년간 시장대비 34.7%p underperform했으나 지난 3년간은 최근의 주가상승으로 9%p outperform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통신업체 주가는 수익 호전으로 국내 통신주보다 더 올랐다. 특히 수익성 호전이 두드러진 일본의 NTT DoCoMo와 KDDI는 각각 63%, 54%나 상승했다.

[그림 1] KOSPI vs. KOSPI 통신업 지수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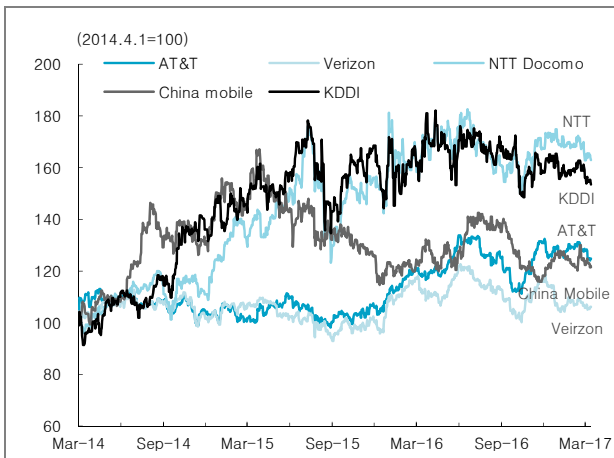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 KOSPI vs. KOSPI 통신업 지수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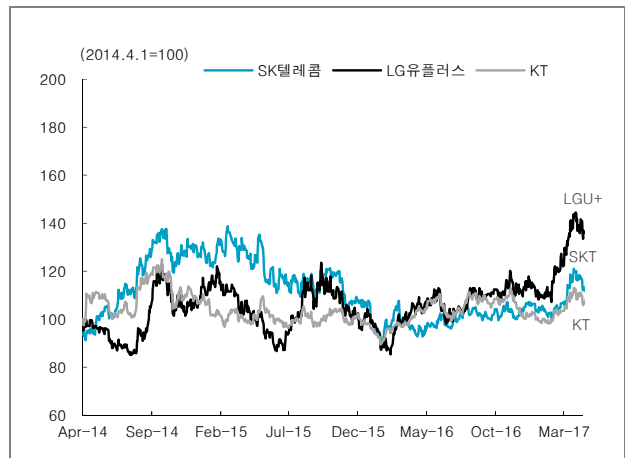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3] 해외 주요 통신업체 주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국내 통신업체 주가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표 1> 국내의 통신업체 영업이익률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SKT	14.6	14.4	10.7	12.1	10.6	10.0
KT	10.9	8.2	5.1	3.5	-1.8	5.8
AT&T	7.3	10.2	23.7	9.2	16.9	14.9
Verizon	11.6	11.4	26.5	15.4	25.1	21.5
NTT DoCoMo	20.0	20.6	18.7	18.4	14.6	17.3
KDDI	13.7	13.4	14.0	15.3	15.5	18.5

자료: 각사,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17년 수익은 경쟁완화로 호전 전망

주가 상승 단기 요건은 마케팅 경쟁 완화, 중장기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인한 매출 증가

17년 순이익은 16.4% 증가해 수익성 호전 지속 전망

IPTV가 수익 호전의 견인차

통신주는 최근의 상승 국면을 이어갈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마케팅 경쟁 완화로 수익 호조세가 이어질지,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데이터 소비 시대에 데이터 트래픽이 늘고 이렇게 늘어나 트래픽이 수익 증대로 이어질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다.

17년 통신 3사의 서비스 매출액(단말기 판매 제외)은 전년대비 2.5% 늘고 순이익은 16.4% 증가해 수익성은 호전될 전망이다. 15년 이후 서비스 매출액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사물인터넷(IoT)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데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서비스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PTV는 12~16년 중 매출액이 4배 증가했으며 적자폭은 대폭 줄었다. 17년에는 가입자 증가, 주문형비디오(VOD) 매출 증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인상으로 매출이 15.4% 늘고 1,400억원 흑자로 전환돼 통신업체 수익 개선을 주도할 전망이다.

〈표 2〉 통신업체 합산 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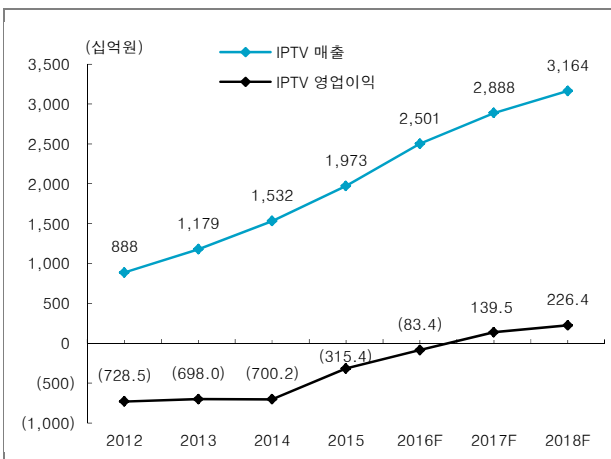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매출액(단말기 매출 포함)	50,902.4	51,863.1	50,653.9	50,213.2	51,286.5	52,778.7	54,246.8
증가율	9.8	1.9	(2.3)	(0.9)	2.1	2.9	2.8
서비스 매출액	42,423.9	44,298.0	44,591.1	45,304.6	46,126.3	47,258.4	48,705.3
증가율	7.9	4.4	0.7	1.6	1.8	2.5	3.1
마케팅비용	8,071.4	8,384.1	9,304.4	8,396.8	8,262.4	8,237.0	8,313.9
증가율	12.6	1.6	11.0	(9.8)	(1.6)	(0.3)	0.9
영업이익	3,080.7	3,392.5	1,994.9	3,633.3	3,722.2	4,030.3	4,500.8
(KT 명예퇴직금 제외)	3,080.7	3,392.5	3,047.6	3,633.3	3,722.2	4,030.3	4,500.8
증가율	(28.6)	8.8	(10.2)	19.2	2.5	8.3	11.7
순이익	2,149.1	1,756.0	973.9	2,422.8	2,879.8	3,352.0	3,755.4
(KT 명예퇴직금 제외)	2,149.1	1,756.0	1,795.0	2,422.8	2,879.8	3,352.0	3,755.4
증가율	(31.6)	40.5	2.2	35.0	18.9	16.4	12.0

주: 14년 KT 명예퇴직금은 1조 52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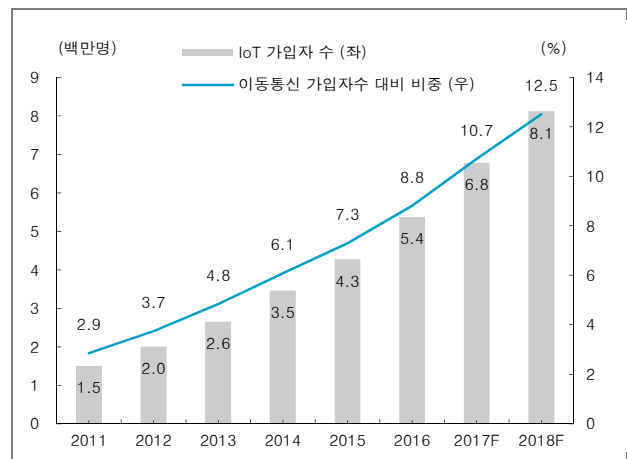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5] 통신 3사의 IPTV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이통 3사 사물인터넷 가입자 수



자료: 한국투자증권

## ■ 데이터 수요 증가가 중장기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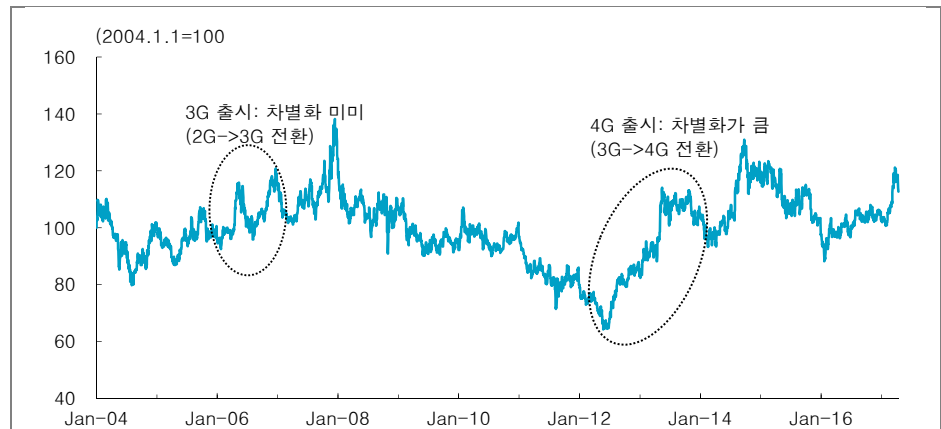
5G 서비스가 매출 증가로 이어져야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지속 가능

통신주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며 한단계 레벨업하려면 향후 대규모 데이터 소비 시대에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수익 증대로 이어져야한다. 4차 산업 혁명에 의한 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기반 인프라인 5G 서비스가 매출 증대와 주가 상승의 견인차인 것이다.

3G에서 4G로 진화는 전송 속도가 확연히 빨라져 데이터 수요 늘고 주가 급등

지난 2G 서비스에서 3G로 진화한 05~06년과 3G 서비스에서 4G로 진화한 12~13년은 주가 상승률이 크게 달랐다. 2G와 3G는 이용자가 느끼는 전송속도 차이가 크지 않아 당시 주가는 상승폭이 작았다. 하지만 3G에서 4G로 진화는 전송속도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동영상 위주로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고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그림 7] 통신 기술 진화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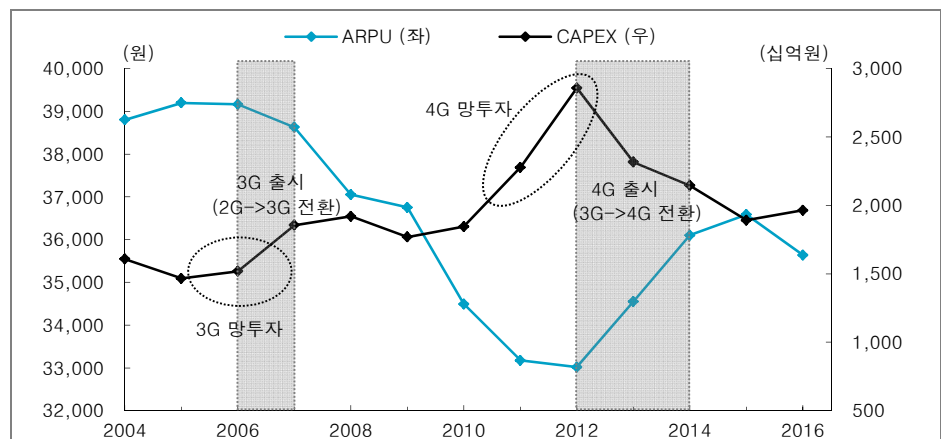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3G에서 4G로 진화는 ARPU 증가로 이어져 주가에 긍정적

2G 서비스에서 3G로 진화는 전국망 구축으로 설비투자는 늘었으나 가입자당 매출액 (ARPU)은 감소했다. 하지만 3G 서비스에서 4G로 진화는 데이터 이용량 증가로 ARPU가 크게 늘었다. 4G는 투자비가 빠르게 회수될 수 있었다. 빠른 전송속도가 데이터 소비로 이어지고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매출 증가로 이어져야 수익이 호전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그림 8] 기술진화기 SKT의 ARPU 및 설비투자



주: 2010년 ARPU 산정 기준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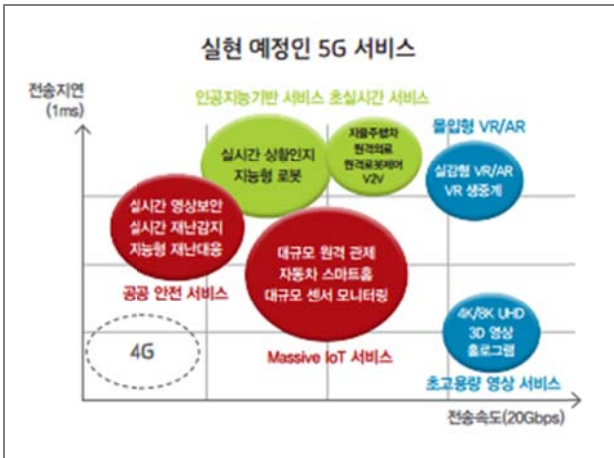
자료: SKT, 한국투자증권

## ■ 5G 서비스 진화가 성장 모멘텀으로 부상할 것

5G는 4G보다 270배 빠른 차세대 기술로 AR, VR, AI, 자율주행 등 신성장동력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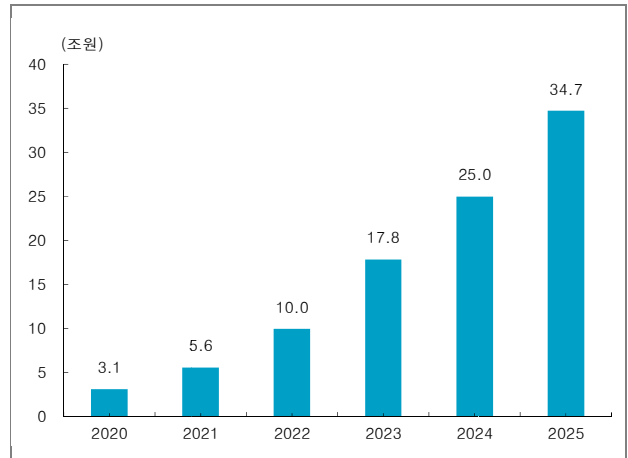
5G는 초고속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전송속도가 20Gbps로 4G대비 270배(최근 3band LTE 대비 66배) 빠르다. 초고용량 콘텐츠를 활용해 VR, AR 등 차세대 미디어가 활성화될 것이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으로 응용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시장 선점을 위해 전세계 통신업체와 장비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KT가 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19년에 최초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25년 한국과 전세계 5G 시장은 각각 35조원, 800조원으로 전망된다.

[그림 9] 실현 예정인 5G 서비스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국내 5G 시장 규모 추이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한국투자증권

## ■ 최근 규제 이슈는 향후 점검 필요

5G 1,300MHz 대역폭  
주파수 확보비용, 설비투자  
비용은 부담

미래부는 5G 서비스에 대비해 18년까지 3.5GHz 대역에서 300MHz 대역폭, 28GHz 대역에서 1,000MHz 대역폭 등 총 1,300MHz 대역폭을 할당할 계획이다. 5G 주파수는 현 3사 보유 주파수 464MHz의 2.8배에 달한다. 지난 6년간 100MHz 대역폭 확보에 대략 2조원이 소요됐다. 주파수 확보비용보다 설비투자 부담이 더 큰 문제다. 기존 대역과 동 떨어진 고주파 대역이어서 설비투자 규모가 클 것이다. 5G 전국망 구축 이전에 기존 4G 전국망을 활용해서 5G를 조기에 상용화하는 NSA(Non-standalone) 기술로 급격한 설비투자 증가 없이 소프트랜딩하는 것이 최선이다. 5G 선투자비용은 18년부터 지출되나 5G 매출은 21년 이후에나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어 매출, 비용간 시차가 생긴다. 통신업체는 그동안 차세대 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늘려왔다. 2G, 3G, 4G 사업 경험으로 5G 사업 위험도를 낮춰갈 것이다.

〈표 3〉 주파수 경매 내역과 경매 계획

(단위: 십억원)

	2011	2013	2016	2018F
주파수 공급 대역폭 (MHz)	50	90	100	1,300
최저 기준가격	1,152	1,441	1,816	?
낙찰가격	1,702	2,429	2,111	?

자료: 미래부, 한국투자증권

〈표 4〉 통신 3사 설비투자

(단위: 십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F	2018F
SKT	3,394	2,879	3,008	2,541	2,730	2,900	3,000
KT	4,061	3,663	3,314	3,116	2,959	2,930	2,930
LGU+	1,680	1,568	2,212	1,410	1,256	1,390	1,420
합계	9,135	8,110	8,534	7,067	6,945	7,220	7,350

자료: 각사,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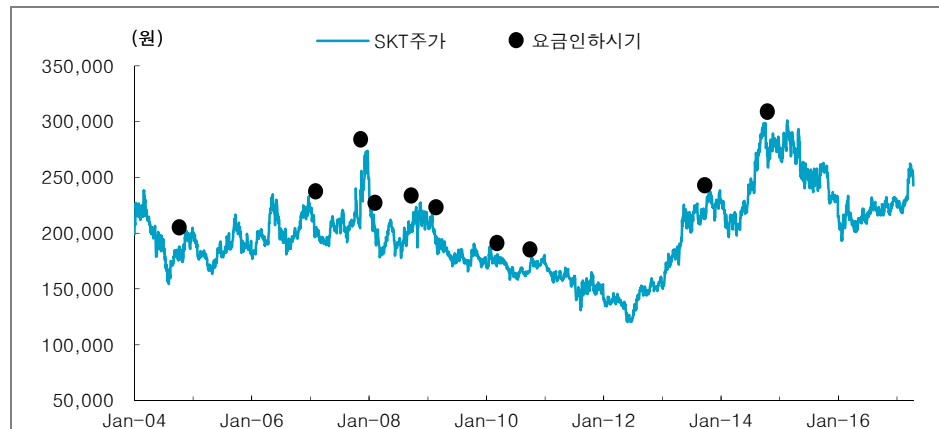
### 최근 대선 공약으로 불거진 규제 이슈는 주가에 부담

최근 대통령 후보의 통신정책 공약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본료 폐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 조기 폐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낮은 속도로 데이터 이용 가능),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 공약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규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09년부터 11년까지 초단위 요금제 도입(09.9), 기본료 1,000원 인하(11.6) 등으로 요금인하가 단행돼 실적은 부진하고 주가는 하락했다.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규제 리스크는 주가의 부담 요인이 될 것이다.

### 통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 유지

통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사드 영향이 미미한 안전한 내수주다. 사물인터넷(IoT)이 가입자 급증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IPTV가 흑자로 전환되며 이익 호전을 이끌 전망이다. 매출 호조와 비용 절감으로 17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 호전이 배당 증가로 이어져 배당메리트가 높다. 5G로 진화하며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며 성장성이 높아질 것이다. 5G 관련 주파수 비용, 설비투자비는 점진적 투자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valuation이 시장 대비, 글로벌 통신주 대비 낮아 매력적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규제 리스크가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점검이 필요하다. 대선 이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나오고 실행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 장기적인 이슈다.

[그림 11] SKT의 주가와 요금인하 시기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표 5〉 커버리지 valuation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실적 및 Valuation									
종목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ROE (%)	EV/EBITDA (배)	DY (%)
SK텔레콤 (017670)	투자의견	매수	2015A	17,137	1,708	1,519	20,988	216,875	10.3	1.0	10.2	4.5	4.6
	목표주가(원)	315,000	2016A	17,092	1,536	1,676	23,497	225,796	9.5	1.0	10.7	4.7	4.5
	현재가 (4/20, 원)	249,000	2017F	17,462	1,734	2,030	28,745	239,310	8.7	1.0	12.3	4.7	4.0
	시가총액(십억원)	20,105	2018F	18,011	1,956	2,247	31,816	255,533	7.8	1.0	12.7	4.4	4.0
			2019F	18,191	2,183	2,410	34,137	272,928	7.3	0.9	12.6	4.0	4.4
KT (030200)	투자의견	매수	2015A	22,281	1,293	553	2,258	44,851	12.5	0.6	5.2	2.8	1.8
	목표주가(원)	42,500	2016A	22,744	1,440	711	2,904	47,113	10.1	0.6	6.4	2.7	2.7
	현재가 (4/20, 원)	31,600	2017F	23,286	1,520	789	3,222	49,225	9.8	0.6	6.7	2.8	3.0
	시가총액(십억원)	8,251	2018F	23,802	1,678	890	3,633	51,629	8.7	0.6	7.2	2.6	3.3
			2019F	24,276	1,804	977	3,987	54,271	7.9	0.6	7.5	2.5	3.6
LG유플러스 (032640)	투자의견	매수	2015A	10,795	632	351	805	10,187	12.9	1.0	8.1	3.9	2.4
	목표주가(원)	17,800	2016A	11,451	746	493	1,129	11,054	10.1	1.0	10.6	3.6	3.1
	현재가 (4/20, 원)	14,050	2017F	12,031	776	533	1,221	11,882	11.5	1.2	10.6	3.8	2.7
	시가총액(십억원)	6,134	2018F	12,434	866	619	1,418	12,857	9.9	1.1	11.5	3.5	3.1
			2019F	12,685	922	675	1,547	13,942	9.1	1.0	11.5	3.3	3.2

자료: 각사,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Risk off 완화, 중화권 증시 강세

- ▶ 상해종합지수는 강보합 마감, 감세 정책 추진과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추진 가속화가 호재
- ▶ 홍콩H지수는 0.7% 상승, 저가 매수세 유입과 본토자금의 순 유입세로 전환된 것이 호재

상해종합지수 강보합 마감,  
양조, 공정건설, 조선, 헬스  
케어, 방위 등의 업종 강세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3,172p로 강보합 마감하며 5거래일만에 강세로 전환했다. 보합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등락이 반복했다. 거래대금은 2,201억위안으로 직전일대비 소폭 줄었다. 최근 금융 규제에 따른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블루칩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 국무원에서 감세 정책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다. 또한 외환 관리국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입 영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융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한편 최근 급락하던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강세로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양조, 공정건설, 조선, 헬스케어, 방위, 음식료,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강세를 보였고, 시멘트, 석유화학, 귀금속 업종은 하락했다. 한편 차스닥 지수는 0.3% 상승한 1,850p로 마감했고, 외국인들은 상해와 심천 주식을 모두 순매수했다.

홍콩H지수 0.7% 상승,  
산업재, 통신, 금융, 소비재  
등의 업종 상승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0.7% 상승한 10,056p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10,000선을 회복했다. 강세로 출발한 증시는 마감직전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휴 이후 급락했던 증시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과 본토자금의 2거래일간의 순유출세를 마치고 순유입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에 따른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이 악재로 작용하며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했다. 업종별로는 산업재, 통신, 금융, 소비재 등이 상승했다. 한편 A/H프리미엄은 홍콩증시의 상대적 강세 속에 119p로 하락 마감했다.

####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 분	4/20 (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172.10	0.04	-3.17	-2.42	2.21
심천종합	1,928.78	-0.19	-4.26	-5.27	-2.05
차스닥	1,850.39	0.27	-3.15	-5.29	-5.69
홍콩H	10,056.17	0.73	-1.08	-4.99	7.04
Shibor 7일물 금리(% , %p)	2.76	0.22	3.14	0.40	8.45
Shibor 1개월 금리(% , %p)	4.01	0.11	0.20	-7.23	21.15
중국국채 3년물(% , %p)	3.15	0.21	3.87	8.02	9.18
위안/달러 고시환율	6.8792	0.19	0.08	-0.30	-0.83
역내 위안/달러	6.8828	0.08	0.10	0.37	0.90
역외 위안/달러	6.8792	0.09	0.09	0.14	1.41

주: 20일 오후 5시 47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기관, 외국인의 시장별 매매가 엇갈리며 혼조 마감

- 뉴욕증시는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에너지업종이 1.4% 하락한 것과 IBM 실적 실망감으로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기관 매도세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외국인과 금융투자, 연기금 매수세로 상승 전환해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2,150P선에 바짝 다가섬. 코스닥은 개인 매수세와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맞서며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세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1분기 유럽 판매 호조 소식에 현대, 기아차가 사흘 만에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으며, 타이어,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임. 고어텍스 멤브레인 개발에 따른 성장 기대감에 상아프론테크가 급등했으며, 중국 최대 홈쇼핑 업체인 '해피코'와 공급 계약 체결에 이어 협력사인 스웨덴 아노토그룹이 스마트펜을 인도 시장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에스마크가 이를 연속 초강세를 보임. 또한, 75억원 규모의 공군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아이티센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삼성전자는 외국계 매도세로 닷새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종목/테마	내 용
<b>현대차(005380)</b> <b>▶141,500 (+3.28%)</b> <b>기아차(000270)</b> <b>▶34,900 (+2.35%)</b>	<b>1분기 유럽 판매 호조 소식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기아자동차의 1분기 유럽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에 강세</li> <li>- 아울러, 1분기 유럽 시장 점유율은 6.1%로 전년동기대비 0.1% 상승했으며, 3월 판매는 현대차가 9.3%, 기아차가 10% 증가세를 보임</li> </ul>
<b>상아프론테크(089980)</b> <b>▶13,000 (+18.18%)</b>	<b>고어텍스 유사소재 개발 소식에 초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물질에 대한 통과·배제가 가능한 'ePTFE 멤브레인' 개발 성공으로 기능성 특수소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초강세</li> <li>- 'ePTFE 멤브레인'의 잠재시장 규모는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기차용 부품과 반도체 패키징 ETFE 필름에 멤브레인 사업이 더해져 성장과 이익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li> </ul>
<b>화장품 관련주</b>	<b>1분기 수출 증가 소식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화장품 수출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됐으나, 1분기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2.1% 증가했다는 소식에 강세</li> <li>- 네오팜(092730, +7.32%), 콜마비엔에이치(200130, +7.30%), 연우(115960, +5.47%), 코스온(069110, +5.28%), 코스맥스비티아이(044820, +4.77%), 한국콜마홀딩스(024720, +4.70%), 에이블씨엔씨(078520, +3.63%), 아모레퍼시픽(090430, +3.55%) 등 강세</li> </ul>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b>우리은행(000030)</b> <b>▶14,200 (+0.7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43.8%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신고가 경신</li> </ul>
<b>룽투코리아(060240)</b> <b>▶15,750 (+4.3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회사에서 개발한 '열혈강호 모바일'이 출시 이후 중국 최대 안드로이드 마켓 '360'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텐센트 앱마켓인 '응용보'에서도 최고 매출 3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li> </ul>

## 단기 유망종목: 티웨이홀딩스 외 5개 종목

### - 신규 편입 종목

티웨이홀딩스 (0048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기 대수 증가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전망</li> <li>경쟁 저비용항공사 대비 비행기 사용 연차가 낮아 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영 효율성이 높음</li> <li>일본과 동남아로의 노선 다양화를 통해 중국 여행객 감소에 따른 피해 최소화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5.6배로 저평가 매력 상존</li> </ul>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6. 12A	412	14	4	51	33.6
	2017. 12F	575	45	30	466	5.6

- 편입 제외 종목: 에버다임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제외 -7.4%)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대아티아이 (045390)	2,030 (+1.2)	2,005 (0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정부 투자로 신호제어 및 열차 자동 정지장치(ATP) 수주가 확대될 전망</li> <li>지하철 1,2호선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보수 공사로 대형 수주 획득 가능성</li> <li>2009년 이후 지연되고 있던 24조 규모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사업 공사가 2018년부터 시작될 전망</li> </ul>
해성디에스 (195870)	17,150 (+12.5)	15,250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전장화 추세로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하는 리드프레임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며 초박막팔라듐 기술 우위와 가격 경쟁력이 부각됨. 또한 주요 고객사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자동차 반도체용 제품이 단가는 높고 물량 변동성은 낮아 안정적인 실적 향상이 전망됨</li> <li>메모리 기판시장에서 세계 유일의 Reel to Reel(자동연속생산) 기술을 통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li> </ul>
에스원 (012750)	94,300 (+5.4)	89,500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과 건물관리 결합 판매의 시너지 확대 등으로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 전망</li> <li>삼성전자 평택공장 및 베트남 공장 건설로 상품판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가격 인상 효과로 통합보안 매출도 증가할 전망</li> </ul>
GS리테일 (007070)	54,200 (+4.0)	52,100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년 편의점 신규 출점수는 1,200개로 예상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외형성장과 마진 개선폭이 두드러질 전망</li> <li>부실점포 정리로 슈퍼마켓 사업부의 영업적자규모는 축소될 전망</li> <li>1인 가구 증가와 '혼밥' 문화 확산에 따른 편의점사업의 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li> </ul>
엘앤케이바이오 (156100)	8,080 (-1.0)	8,160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화 및 비만 인구 증가에 따라 척추임플란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성공적인 진입 이후 본격적인 성장 기대</li> <li>제품 다각화 차원에서 개발한 무릎 인공관절의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영업망을 이용하여 판매가 가능해 기존사업과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파트론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매출액	영업이익	2017년 추정실적 순이익	EPS	PER
파트론 (091700)	11,100 (-2.2)	11,350 (04/13)	791	38	28	402	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갤럭시S8 사전예약이 돌풍을 일으키며 전면 카메라 주요 부품 공급사들의 수혜 예상</li> <li>- 스마트폰의 스펙 상향과 IoT제품 판매 증가에 따라 센서모듈사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li> <li>- 모듈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시장과 헬스케어 센서 시장으로 본격 진출 예상</li> </ul>							
오텍 (067170)	11,750 (+3.5)	11,350 (04/06)	710	28	11	904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최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li> <li>-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li> <li>-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캐리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li> </ul>							
NAVER (035420)	796,000 (-1.6)	809,000 (03/03)	4,633	1,372	973	32,386	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스냅챗' 상장에 따라 사진 중심의 메신저인 '스노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예상</li> <li>- 인공지능경망 기반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에 이어 웹브라우저 '웨일', 음성비서 '클로바' 등 적극적인 R&amp;D 결과물이 공개되면서 기술플랫폼 업체로서의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li> </ul>							
SK텔레콤 (017670)	249,000 (+6.9)	233,000 (03/03)	17,402	1,773	2,032	28,774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6조원, AI,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등 차세대 ICT 사업에 5조원, 총 합계 1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힘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li> <li>- CEO교체에 함께 M&amp;A위주의 경영전략 변화, SK플래닛 정상화, 연결실적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의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li> </ul>							
씨엠에스에듀 (225330)	27,300 (+3.2)	20,450 (02/07)	66	14	11	2,567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부터 수능 영어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돼 변별력이 낮아지고, 주요 대학의 이공계 입시 정원이 확대되어 수학 사교육비가 증가할 전망</li> <li>- 작년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급학교와 학생 수가 확대될 전망. 4%를 상회하는 배당 수익률 예상</li> </ul>							
청담러닝 (096240)	17,650 (-2.5)	18,100 (12/29)	163.1	27.8	15.1	2,194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대표 영어교육 전문기업으로 오프라인 학원을 직영 및 가맹형태로 운영하며, 콘텐츠 사업과 스마트러닝 기반의 스마트클래스 사업을 운영</li> <li>- 베트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예정이며 2017년부터 중국 온리듀케이션과 계약한 솔루션 로열티 수입이 본격화 될 전망</li> <li>- 영재수학교육을 영위하는 자회사, CMS에듀케이션의 높은 실적 성장세에 주목</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NAVER, SK텔레콤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반도체 소재: 소재업체의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

### ■ 반도체 소재업체 평균 PER 11배로 저점 수준. SK머티리얼즈 top pick 추천

국내 주요 반도체 소재업체들의 주가가 12개월 forward PER 11배로 하락하며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 D램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주요인이다. D램 수요 증가는 둔화되나 소재업체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낸드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소재업체들의 주가는 반등할 전망이다. SK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및 디엔에프에 대해 ‘매수’를 추천하고 성장성이 가장 높은 SK머티리얼즈를 top pick으로 제시한다.

### ■ 소재 시장의 성장은 계속된다

반도체 소재 시장은 반도체 미세화에 따른 공정수 증가와 3D 낸드 설비투자 증가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미세화로 증가하는 공정은 증착과 식각이며 국내 소재업체들의 제품도 이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 소재업체들이 해외 업체를 대체하는 속도가 느리지만 지난 10년간 국내 소재업체들의 매출액은 연평균 16% 늘어나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13%)을 상회했다. 올해 커버리지 소재업체들의 매출액은 18% 늘어날 전망이다.

### ■ 2017년 반도체 설비투자 증가로 2018년에도 성장 지속

지난 12월 이후 반도체 장비/소재업체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1분기 비수기 영향, D램 업황 둔화 전망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비수기는 지나갔고 소재업체들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산업인 낸드산업의 호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소재업체 실적은 낸드생산량 증가로 2분기부터 개선돼 하반기까지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다. 201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37% 증가해 2018년에도 소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현재 PER이 평균 11배로 과거 저점 수준이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낮다. 쌀 때 사두자.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1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보험: 자본확충 우려 완화로 안도국면 진입

### ■ 자본적정성 우려 확대 보다는 축소 구간

신 RBC(Risk Based Capital) 규제 강화로 보험사 주가는 급락했지만 2Q는 점진적 우려 해소로 보험주의 안도국면을 예상한다. 1) 시중금리는 연초 예상보다 횡보세를 보였기에 1Q RBC는 우려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2) 6월 예정된 부채듀레이션 확대(최대만기 20년 → 25년)는 12월 시행으로 업계와 감독당국이 조율 중이다.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으로 2Q RBC도 개선된 수치를 예상한다. 3) 최저보증리스크 강화 방안은 시장금리 적용이 아닌 기존 공시이율 방식에서 소폭 조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019년~2020년 도입). 공시이율의 반등을 고려하면 금리역전에 따른 금리리스크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비관론이 팽배했던 감독당국의 자본 규제 불확실성은 우려 확대보다 축소 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한다.

### ■ 보험업종, 안도 국면으로 진입

금리가 자본적정성에 악재라는 우려가 있지만 단기간 자본 감소보다 부채 감소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이중적 접근에는 경계가 필요하다. 시장 오해는 자산은 시가평가를 하되 부채는 원가법을 준용하는 현재 회계의 불일치에 기인한다. 금리는 명백히 보험사의 미래부채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다. KB 손보는 금리 10bp 상승 시 자본은 400억원 감소하지만 부채가 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RBC 규제 완화, IFRS17기준서 공개로 불확실성 확대보다는 축소 국면이 예상되기에 관련 노이즈로 부진했던 현대해상/동부화재를 우선적으로 선호한다. 생보는 실적 정상화, 금리 방향성에도 주가가 부진하다. IFRS17이 보유계약의 결손/상계를 일부 허용해 줄 예정이기에 생보 부담도 부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생보(삼성생명/한화생명/동양생명)의 점진적 비중확대를 권하며 생보 최선호주는 삼성생명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1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운송: 촘촘한 운송망, 풍부한 먹거리

### ■ 공급이 창출하는 수요

운송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저비용항공과 택배산업에 주목한다. 운송주 투자의 초점은 수요를 이끄는 공급에 있다. 배송이 빨라 집 앞 슈퍼에서 사던 걸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항공요금이 싸서 해외여행을 더 자주 떠난다. 이러한 소비를 유도하는 운송업체는 경쟁심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이익증가를 보여줄 것이다.

### ■ 합리적 여행소비를 이끄는 제주항공

저비용항공의 약진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소비자들이 해외여행 빈도를 늘리고 있다.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근거리 노선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국내 저비용항공 선두주자인 제주항공을 top pick으로 추천한다. 2019년까지 수송 여객수가 연평균 15%(시장 8%) 늘어 1위의 입지가 확고해질 것이다. 현재 2017F PER은 12배로 EPS 성장 속도가 유사한 중국 저비용항공사 대비 39% 할인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도 크다.

### ■ 온라인쇼핑 배송전쟁을 이끄는 CJ대한통운

유통업체들이 온라인쇼핑 경쟁의 초점을 배송서비스에 두고 있어 택배업체의 수혜가 커지고 있다. 국내 택배산업의 과점적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을 차선호주로 제시한다. 운임경쟁력과 물류투자에 가장 앞서 있어 2019년까지 택배 물동량이 연평균 14%(시장 11%)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점유율은 작년 42%에서 48%로 높아져 경쟁업체들과의 격차를 벌릴 것이다. 현재 주가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12MF PER 30배에 거래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었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LG이노텍(011070)

매수(분석재개)

목표가: 178,000원

종가(4/19): 135,000원

### 카메라가 끌고 전장이 민다

#### ■ 올해가 2014년보다 더 좋다

목표주가는 2017년 BPS에 LG이노텍이 2014년에 받았던 상단 멀티플인 2.1배를 적용했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해외 주요 고객사향 듀얼카메라와 신규 센싱모듈의 공급이 기대되는 만큼 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시를 전후한 supply chain 업체들의 주가는 제품 출시 5개월 전인 현재 시점부터 올랐다.

#### ■ 올해와 내년은 카메라가 주도하지만 전장부품도 주목

투자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해외 주요 고객사의 듀얼카메라 채용 확대와 신규 센싱모듈 추가 공급으로 하반기 매출액은 상반기 대비 50%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듀얼카메라 1차 벤더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학솔루션의 수익성이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이다. 셋째, 2017년 말 차량부품 수주잔고가 11조원에 육박하며 장기 먹거리가 확보될 것이다. 차량부품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2017년 13%에서 2019년 23%로 상승할 것이다.

#### ■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추가 상승 예상

1분기 영업이익은 781억원(영업이익률 4.8%)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분기에는 해외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물량이 감소해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34% 감소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1분기 고점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대비 1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6년 하반기의 영업흑자 전환 시기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며 지금이 매수 적기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6,138	224	95	4,018	(15.6)	706	24.5	4.3	1.3	5.5	0.4
2016A	5,755	105	5	209	(94.8)	456	423.0	6.2	1.2	0.3	0.3
2017F	7,642	399	240	10,156	4,759.5	783	13.3	5.1	1.6	12.7	0.2
2018F	8,436	510	323	13,630	34.2	921	9.9	4.3	1.4	14.9	0.2
2019F	9,008	566	367	15,527	13.9	985	8.7	4.0	1.2	14.6	0.2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1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LG전자(066570)

매수(분석재개)

목표가: 96,000원

종가(4/19): 70,700원

## 프리미엄이 주는 선물

## ■ 앞으로는 프리미엄 가전과 TV 사업에 주목하자

1분기 잠정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원가 구조가 개선된 휴대폰 사업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향후에는 휴대폰의 개선보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하는 가전 및 TV 사업부 실적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2017년 가전 사업부는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인 8.5%를 기록할 것이고 TV 사업부(HE)는 프리미엄 TV 매출액이 18% 증가하면서 5.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 ■ 휴대폰 적자폭 축소되고 프리미엄화로 제품믹스 개선

투자포인트는 세가지다. 첫째, 휴대폰 사업부가 전략을 과감히 변경, 원가구조 개선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올해 영업이익자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둘째, 가전 사업부는 B2B 판매로 외형 성장을 이끌고 B2C향 프리미엄 제품을 확대해 수익성 제고를 추구할 것이다. 셋째, TV 사업부는 프리미엄 TV의 비중 상승으로 제품믹스가 개선되며 최근의 패널가격 안정 또한 긍정적 요소이다.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62조 5,825억원, 영업이익은 125% 늘어난 3조 49억원(영업이익률 4.8%)으로 전망한다.

## ■ 1분기 서프라이즈는 휴대폰 사업부의 영업적자 축소가 주도

LG전자의 사업부별 상세 실적은 4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는 사업부별 영업이익(영업이익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가전 4,927억원(10.9%), TV 3,849억원(8.7%), 휴대폰 -346억원(-1.1%) 및 전장 -88억원(-1%). 특히 휴대폰 영업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7년 주요 스마트폰 경쟁업체들의 신규 모델에 대한 기대도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휴대폰의 추가적인 개선보다는 프리미엄 전략이 자리잡고 있는 가전 및 TV 실적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56,509	1,192	124	686	(69.0)	3,125	78.4	5.3	0.8	1.1	0.7
2016A	55,367	1,338	77	422	(38.5)	3,081	122.3	5.1	0.8	0.7	0.8
2017F	62,583	3,005	1,384	7,685	1,721.0	4,825	9.2	4.0	1.0	10.9	0.6
2018F	65,684	3,258	1,248	6,930	(9.8)	5,153	10.2	3.9	0.9	9.0	0.6
2019F	70,248	3,905	1,578	8,764	26.5	5,855	8.1	3.5	0.8	10.4	0.6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1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LG화학(051910)

중립(유지)

종가(4/19): 270,500원

##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나 상승여력은 제한적

## ■ What's new : 어닝 서프라이즈

LG화학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3% 증가한 7,969억원으로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32%, 15% 상회했다. 석유화학부문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5% 늘어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 1분기 석유화학부문 영업이익 기여도는 전체 영업이익의 92%에 달했다. 1분기 전사 영업이익 차이의 약 74%가 화학부문 실적과 추정치 간의 괴리에서 발생했다. 정보전자소재 부문 또한 예상과 달리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였다. 전체 영업이익과 추정치 간 차이의 24% 가량이 정보전자소재 부문에서 발생했다. 석유화학 및 정보전자소재 부문의 실적 개선을 감안해 2017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5% 상향한 3조 363억원으로 조정한다.

## ■ Positives : 업스트림 제품이 깜짝 실적의 주요인

석유화학부문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5% 개선돼 추정치를 24% 상회했다. 매출이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추정치 7% 상회)이다. 특히, LG화학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석유화학부문 이익 개선의 대부분이 업스트림인 NCC/PO에 의해 이뤄졌음을 밝혔다. NCC/PO 매출이 추정치를 15% 상회한 점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정보전자소재 부문 또한 4분기 영업적자(영업이익률 -2%)에서 1분기 흑자(영업이익률 4%)로 돌아섰다. 1) 엔화 약세로 인해 원재료비가 100억원 가량 줄었고, 2) 수율 개선으로 유리기판 사업부의 적자폭이 축소됐으며, 3) 1분기 판가 하락 또한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 ■ Negatives : 배터리부문 적자폭 전분기 대비 확대

주요 value driver인 배터리부문은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영업적자 37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LG화학은 배터리 부문의 분기 단위 적자가 1분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과 달리 턴어라운드 시점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았다. 올 해 배터리부문 영업이익은 기존 996억원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285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 자동차용 배터리의 판가가 하락세인 반면 원재료 가격은 높아지고 있어, 수익 개선 가시성이 낮기 때문이다.

## ■ 결론 : 밸류에이션 매력 부재, 향후 상승여력 제한적

LG화학에 대한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 실적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SotP 밸류에이션 상 현 주가 대비 상승여력은 제한적이다. 현재 높은 peer multiple을 받는 배터리 및 바이오 부문 실적은 미미하거나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기업 가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2분기 화학제품 스프레드가 전분기 대비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3분기 집행될 바이오 사업의 중장기 capex 플랜이 주요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위: 십억원, %, %p)

	1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5,737	6,487	13.1	6,230	17.7	33.1	26,788	24,125
영업이익	603	797	32.1	692	72.6	74.1	3,036	2,509
영업이익률	10.5	12.3	1.8pt	11.1	3.9pt	2.9pt	11.3	10.4
세전이익	573	698	21.9	642	95.0	65.1	2,837	2,280
순이익	434	531	22.5	480	97.7	56.4	2,153	1,737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1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한국항공우주(047810)

## 매수(유지)

목표가: 77,000원(유지)

종가(4/19): 61,700원

##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진입

## ■ 매출액매출액은 컨센서스 하회, 이익은 소폭 상회

한국항공우주(이하 KAI)의 1분기 추정 실적은 매출액 7,090억원(-0.2% YoY), 영업이익 795억원(-2.1% YoY), 영업이익률 11.2%이다. 컨센서스(매출액 7,321억원, 영업이익 754억원) 대비 매출액은 3% 적으나 영업이익은 5% 많은 것이다.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완제기수출 부문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전년도 11.4%와 비슷할 것이다. 수익성 좋은 기체부품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40%까지 커지기 시작한 2016년 이후로는 일회성 요인이 없다면 영업이익률이 11% 이상으로 안정적이었다.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도 1,154원으로 전년동기의 1,200원대비 다소 하락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 다만 분기말 환율은 전분기대비 7.2% 하락해 환관련평가 손실 인식으로 추정 세전이익은 368억원이다.

## ■ 완제기수출 수주는 risk이자 기회 요인

올해 들어 주가는 완제기수출 부문의 매출액 감소 우려로 부진했었다. 실제로 2013년 이라크(1.2조원), 2014년 필리핀(0.4조원) 수출 계약 이후에 대규모 수주가 부재했다. 올해 의미 있는 완제기수출 신규수주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매출액이 늘어나기 어렵다. 현재 보츠와나, 태국, 페루, 등에서 T-50시리즈(FA-50 포함)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이중 일부가 연내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완제기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두개 사업부의 영업/실적 상황은 양호하다. 국내방산 사업부는 수리온 체계결빙 관련 일회성 이슈들이 사라졌고, 기체부품 사업부는 안정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즉 줄어들고 있는 완제기수출 수주잔고(16년 0.8조원, 17년 추정 매출 0.77조원)는 현재 risk 요인이지만 동시에 상반기 수주에 성공한다면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 ■ 연말로 갈수록 APT 기대감 반영할 것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훈련기 교체사업인 APT 프로젝트(미국 공군 훈련기 교체사업, KAI 수주 가능 12조원)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KAI의 현재 수주잔고가 1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12조원 규모 프로젝트 수주(올해는 개발 및 초기 양산 24대 0.5조원)는 큰 주가 상승 모멘텀이다. 3월에 본입찰에 참여했으며 최종 결과가 연말에 나올 것이다. 업체 선정에는 기체성능/가격/정치 상황 등 고려요소가 많지만 KAI(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가 보잉(스웨덴 사브와 컨소시엄)과 더불어 가장 유력한 후보인 점은 확실하다. 상반기 완제기수출 수주에 성공한다면 편만한 주가 상승이 예상되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연말로 갈수록 APT 수주 기대감만으로도 안정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7,000원(12MF PER 24배)을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2,901	286	181	1,852	62.5	381	42.2	21.1	6.5	16.4	0.5
2016A	3,101	315	268	2,751	48.5	425	24.4	16.5	4.6	20.8	1.0
2017F	3,246	362	261	2,682	(2.5)	493	23.0	13.3	3.8	17.4	1.1
2018F	3,736	448	344	3,529	31.6	607	17.5	10.9	3.2	19.8	1.1
2019F	4,472	537	413	4,235	20.0	734	14.6	9.1	2.7	20.1	1.1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1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14(금)	4/17(월)	4/18(화)	4/19(수)	4/20(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134.88	2,145.76	2,148.46	2,138.40	2,149.15
	등락폭		-13.73	10.88	2.7	-10.06	10.75
	등락종목	상승(상한)	207(0)	627(1)	478(3)	376(0)	445(1)
		하락(하한)	592(0)	169(0)	298(0)	412(0)	329(0)
	ADR		89.34	98.14	100.58	103.34	104.53
	이격도	10일	99.47	100.07	100.26	99.89	100.41
		20일	99.02	99.55	99.75	99.35	99.90
	투자심리		30	30	40	40	50
	거래량	(백만 주)	384	259	291	344	263
	거래대금	(십억 원)	3,408	3,750	3,971	4,893	4,927
코스닥	코스닥지수		618.24	629.47	634.73	635.99	635.8
	등락폭		-5.63	11.23	5.26	1.26	-0.19
	등락종목	상승(상한)	274(1)	935(3)	708(1)	540(3)	452(2)
		하락(하한)	837(0)	177(0)	369(0)	546(0)	636(0)
	ADR		100.35	102.18	103.04	103.26	103.24
	이격도	10일	98.88	100.66	101.35	101.46	101.34
		20일	100.04	101.69	102.33	102.30	102.02
	투자심리		60	60	70	70	60
	거래량	(백만주)	700	599	914	814	868
	거래대금	(십억원)	3,426	3,102	3,709	3,595	3,665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054.9	1,685.9	1,158.5	438.1	100.0	162.6	89.8	16.9	351.0	34.6
	매도	2,330.9	1,613.0	934.0	277.0	87.5	229.2	81.4	12.2	246.8	56.1
	순매수	-275.9	72.9	224.4	161.1	12.6	-66.6	8.4	4.7	104.2	-21.4
	4월 누계	50.8	-749.1	481.2	541.4	3.2	-162.8	23.4	-16.3	92.3	217.1
	17년 누계	-2,635.5	4,731.2	-4,466.7	-2,006.0	-431.9	-2,670.8	90.7	-370.5	921.7	2,370.9
코스닥	매수	3,281.5	223.2	149.6	33.2	14.6	38.3	17.9	2.9	42.8	20.4
	매도	3,259.1	231.7	154.7	56.7	13.8	30.1	20.3	2.2	31.6	29.2
	순매수	22.4	-8.5	-5.0	-23.5	0.8	8.2	-2.3	0.7	11.2	-8.9
	4월 누계	-262.3	273.0	394.3	60.9	50.3	75.8	79.1	12.7	115.6	-405.0
	17년 누계	1,403.6	324.7	-1,168.3	-274.7	-267.8	-378.7	-44.8	-22.8	-179.6	-560.0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음식료	8,634	전기전자	-26,234
서비스업	3,786	보험업	-12,148
화학	3,227	전기가스	-7,389
하나투어	5,889	삼성전자	-21,828
LG생활건강	3,775	한국전력	-7,010
롯데제과	2,821	KODEX 200	-5,100
KB금융	2,547	SK	-3,929
CJ	2,521	삼성생명	-3,700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101,381	기타금융업	-3,527
서비스업	27,306	건설업	-1,599
유통업	18,612	비금속	-950
TIGER 200	99,494	KB손해보험	-9,114
롯데쇼핑	10,431	LG디스플레이	-8,752
SK하이닉스	10,065	KB캐피탈	-4,273
KT&G	9,930	이마트	-2,340
SK	6,389	KBSTAR 200	-2,26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43,913	유통업	-740
전기전자	2,804	증권	-493
운수장비	1,384	보험업	-257
KODEX 인버스	50,046	TIGER 헬스케어	-1,540
삼성전자	4,437	TIGER 경기방어	-1,155
현대모비스	1,544	KT&G	-1,070
SK	1,034	TIGER 200	-958
NAVER	979	TIGER 코스닥150	-711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6,103	미분류	-5,489
전기전자	5,916	유통업	-2,037
서비스업	4,309	건설업	-1,862
삼성전자	6,500	LG디스플레이	-5,807
SK하이닉스	4,448	KODEX 미국달러선물	-4,949
아모레퍼시픽	3,268	엔씨소프트	-3,240
KODEX 은행	2,493	KBSTAR 200	-2,685
현대차	2,034	TIGER 200	-2,534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09,646	전기가스	-7,992
미분류	59,761	건설업	-7,171
서비스업	40,099	은행	-7,093
삼성전자	117,452	LG디스플레이	-21,883
SK하이닉스	22,896	한국전력	-8,203
TIGER 200	22,736	KODEX 200선물인버스2X	-8,181
롯데쇼핑	22,266	LG화학	-5,954
KODEX 인버스	15,738	하나금융지주	-5,087
KB손해보험	15,515	삼성전기	-4,901
KODEX 레버리지	14,533	이마트	-4,520
CJ	14,375	LG유플러스	-4,514
아모레퍼시픽	12,350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4,167
KB금융	9,981	엔씨소프트	-4,11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67,366	전기전자	-195,566
운수장비	61,312	미분류	-23,473
서비스업	38,498	전기가스	-4,980
SK하이닉스	47,222	삼성전자	-250,255
현대차	22,821	TIGER 200	-22,745
LG화학	21,581	LG디스플레이	-15,234
LG전자	18,640	KODEX 인버스	-13,026
아모레퍼시픽	18,331	롯데케미칼	-9,116
KT&G	16,291	KB금융	-8,263
LG생활건강	16,116	하나금융지주	-7,584
한국항공우주	15,715	SK이노베이션	-5,572
삼성에스디에스	13,261	한국전력	-5,181
코스맥스	10,706	BGF리테일	-4,53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4,271	IT부품	-2,327	인터넷	6,210	IT부품	-1,978
반도체	2,579	음식료,담배	-1,179	반도체	3,630	사업지원	-1,450
의료,정밀기기	2,286	사업지원	-956	계약	3,065	방송서비스	-1,313
카카오	4,244	매일유업	-1,269	카카오	6,098	상아프론테크	-1,796
게임빌	1,418	메디톡스	-1,028	SK머티리얼즈	3,064	CJ E&M	-1,795
바텍	1,213	모두투어	-974	휴온스	1,743	인터플렉스	-1,559
파라다이스	1,044	CJ오쇼핑	-956	더블유게임즈	1,347	모두투어	-1,377
연우	993	포스코캡텍	-674	아프리카TV	1,267	NHN벅스	-52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음식료,담배	253	반도체	-346	인터넷	3,173	방송서비스	-4,104
도매	218	의료,정밀기기	-164	IT부품	648	연구,개발	-520
일반전기전자	193	IT부품	-143	의료,정밀기기	583	전문기술	-233
뉴트리바이오텍	253	테라세미콘	-483	카카오	3,059	CJ E&M	-4,104
슈프리마	193	동아화성	-321	SK머티리얼즈	1,441	AP시스템	-738
서부T&D	165	진성티이씨	-189	엘앤에프	505	바이로메드	-642
컴투스	157	뷰웍스	-164	덕산네오룩스	490	테스	-573
에스에프에이	142	엠씨넥스	-113	동국계약	488	나무가	-392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16,512	IT부품	-7,254	계약	14,192	기계,장비	-7,953
오락,문화	4,343	계약	-6,684	인터넷	6,049	IT부품	-7,399
디지털컨텐츠	1,996	방송서비스	-6,360	디지털컨텐츠	3,167	소프트웨어	-6,492
카카오	15,850	CJ E&M	-5,552	메디톡스	6,600	룽투코리아	-4,958
SK머티리얼즈	5,090	셀트리온	-3,853	카카오	6,362	아프리카TV	-3,637
연우	3,441	인터플렉스	-2,908	휴젤	5,757	에스와이패널	-1,478
에스엠	2,306	서부T&D	-2,619	APS홀딩스	3,941	인터플렉스	-1,373
휴온스	2,010	모두투어	-2,608	서울반도체	3,940	휴온스글로벌	-1,246
이오테크닉스	1,793	상아프론테크	-2,473	컴투스	3,769	에프엔에스테크	-1,231
아프리카TV	1,724	AP시스템	-2,130	원익IPS	2,476	에스에프에이	-1,193
유니테스트	1,561	메디톡스	-2,073	씨젠	1,662	오스템임플란트	-1,158
파라다이스	1,242	서진시스템	-1,872	덕산네오룩스	1,610	파라다이스	-1,136
더블유게임즈	1,205	이녹스	-1,542	모두투어	1,232	CJ E&M	-1,09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양통상	30 일	조선내화	28 일	AP위성	21 일	리노공업	34 일
제주항공	25 일	세이브존I&C	20 일	하이로닉	14 일	피에스케이	26 일
동양고속	22 일	삼정펠프	19 일	대우스팩2호	13 일	엠벤처투자	24 일
태영건설	22 일	대원제약	16 일	유성티엔에스	12 일	아바텍	17 일
WISCOM	21 일	광주신세계	15 일	티씨케이	11 일	SIMPAC Metal	17 일
조선내화	21 일	일성신약	14 일	심텍	9 일	인터파크홀딩스	17 일
대웅	20 일	영원무역홀딩스	12 일	씨젠	9 일	클리오	16 일
계룡건설	16 일	KPX그린케미칼	10 일	KT뮤직	9 일	아미코젠	12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69,263	LG전자	61,437	카카오	28,701	휴젤	21,200
KB손해보험	104,373	한국항공우주	53,355	파라다이스	14,163	테스	17,711
CJ	52,749	SK하이닉스	49,212	휴젤	10,202	메디톡스	15,068
KB금융	52,437	KT&G	33,059	덕산네오룩스	9,269	AP시스템	8,888
TIGER 200	52,010	LG생활건강	25,170	원익홀딩스	8,221	테라세미콘	7,204
아모레퍼시픽	51,816	한화테크윈	19,494	유니테스트	7,909	APS홀딩스	6,570
KODEX 인버스	44,321	SK텔레콤	18,707	에스티팜	7,436	인바디	5,817
롯데쇼핑	42,008	LG이노텍	16,970	에스엠	6,853	서울반도체	5,403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26,482	67,366	93,849	인터넷	16,512	6,049	22,561
서비스업	40,099	38,498	78,597	디지털컨텐츠	1,996	3,167	5,163
운수장비	14,397	61,312	75,709	반도체	1,442	3,035	4,477
SK하이닉스	22,896	47,222	70,118	카카오	15,850	6,362	22,212
아모레퍼시픽	12,350	18,331	30,681	서울반도체	575	3,940	4,515
KT&G	9,372	16,291	25,663	연우	3,441	457	3,898
LG생활건강	8,868	16,116	24,983	덕산네오룩스	557	1,610	2,167
현대차	101	22,821	22,922	더블유게임즈	1,205	950	2,155
한국항공우주	5,466	15,715	21,181	게임빌	1,171	884	2,054
KB손해보험	15,515	4,838	20,352	씨젠	218	1,662	1,880
삼성에스디에스	5,260	13,261	18,520	이오테크닉스	1,793	1	1,794
CJ	14,375	1,000	15,374	인터파크	1,079	681	1,760
KODEX 레버리지	14,533	211	14,744	디오	109	1,175	1,28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새론오토모티브	34 일	무림페이퍼	25 일
태광산업	28 일	SK네트웍스	20 일
코오롱글로벌	23 일	세아특수강	14 일
대한전선	21 일	태양금속	14 일
한국전력	18 일	대신증권	14 일
SKC	17 일	미원에스씨	10 일
SJM홀딩스	14 일	동부건설	10 일
한양증권	14 일	진양화학	9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무림SP	33 일	디스플레이텍	41 일
PN풍년	24 일	골프존	26 일
삼목에스폼	20 일	제이씨케미칼	17 일
효성오앤비	18 일	룽투코리아	17 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	17 일	아이디스	14 일
KG이니시스	13 일	포스코엡텍	14 일
SIMPAC Metal	12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13 일
CJ프레시웨이	11 일	넥스트아이	13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현대모비스	-32,216	삼성전자	-465,004
한국전력	-28,094	현대차	-64,068
POSCO	-21,264	TIGER 200	-52,179
두산밥캣	-19,089	KODEX 인버스	-20,885
KODEX 레버리지	-18,478	롯데케미칼	-20,874
롯데케미칼	-16,646	LG디스플레이	-20,687
KODEX 200	-15,725	KB손해보험	-19,784
LG화학	-15,529	한국전력	-19,089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CJ E&M	-13,182	룽투코리아	-12,156
서진시스템	-13,068	파라다이스	-7,472
셀트리온	-9,524	카카오	-7,049
피에스케이	-5,458	아프리카TV	-5,597
컴투스	-4,991	웹젠	-4,426
모두투어	-4,097	게임빌	-3,707
실리콘웍스	-3,962	에프엔에스테크	-3,295
에코프로	-3,530	에스아이패널	-2,317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09,646	-195,566 -85,920
전기가스		-7,992	-4,980 -12,972
철강금속		-4,642	-1,566 -6,209
LG디스플레이		-21,883	-15,234 -37,118
한국전력		-8,203	-5,181 -13,384
하나금융지주		-5,087	-7,584 -12,670
KODEX 200선물인버스2X		-8,181	-1,354 -9,535
SK이노베이션		-1,016	-5,572 -6,587
BGF리테일		-572	-4,531 -5,103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4,167	-500 -4,667
대림산업		-2,716	-753 -3,470
효성		-1,734	-1,227 -2,961
금호석유		-615	-2,287 -2,903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IT부품		-7,254	-7,399 -14,653
기계,장비		-1,235	-7,953 -9,188
소프트웨어		-127	-6,492 -6,619
CJ E&M		-5,552	-1,093 -6,644
셀트리온		-3,853	-857 -4,710
인터플렉스		-2,908	-1,373 -4,281
서부T&D		-2,619	-254 -2,873
상아프론테크		-2,473	-149 -2,622
서진시스템		-1,872	-69 -1,941
에프엔에스테크		-679	-1,231 -1,909
동아엘텍		-776	-980 -1,757
가온미디어		-1,315	-417 -1,732
안랩		-672	-935 -1,60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0	19,619	
POSCO	64	16,792	
LG전자	217	15,309	
현대차	79	10,837	
팬오션	2,084	10,641	
기아차	249	8,491	
S-Oil	83	8,130	
코웨이	73	7,42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컴투스	22	2,637	
파라다이스	170	2,524	
카카오	27	2,393	
메디톡스	5	2,378	
실리콘웍스	52	1,499	
CJ E&M	16	1,329	
오스템임플란트	20	1,113	
휴젤	2	975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016	8,212,008	
SK하이닉스	59,447	2,963,450	
NAVER	2,069	1,607,750	
아모레퍼시픽	4,338	1,284,113	
하나금융지주	32,922	1,219,771	
현대차	8,749	1,198,648	
LG생활건강	1,372	1,134,474	
KB금융	22,009	1,102,64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30,599	2,805,928	
카카오	8,013	698,767	
로엔	3,258	288,644	
메디톡스	522	254,140	
바이로메드	2,511	239,802	
코미팜	5,176	185,060	
파라다이스	12,293	183,782	
컴투스	1,360	163,466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3,791	증권	-2,375
운수장비	2,759	보험업	-2,120
전기전자	2,452	화학	-1,344
팬오션	3,555	KB손해보험	-1,235
SK하이닉스	1,562	하나금융지주	-1,009
삼성중공업	1,519	한화생명	-999
두산중공업	1,161	LG유플러스	-936
GKL	1,100	한국타이어	-924
우리은행	1,036	LG디스플레이	-820
기업은행	986	삼성엔지니어링	-804
TIGER 200	850	SK증권	-577
KB금융	662	미래에셋대우	-543
한진중공업	657	대우건설	-52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IT부품	3,623	인터넷	-1,561
기계,장비	1,897	미분류	-256
디지털컨텐츠	1,335	금융서비스	0
파워로직스	2,036	카카오	-1,237
유지인트	955	코디엠	-971
이화전기	832	셀트리온	-420
SKC 솔믹스	762	보타바이오	-379
원익홀딩스	569	크루셜텍	-265
컴투스	549	테스	-247
실리콘웍스	512	루멘스	-235
셀루메드	492	웨이포트	-204
W홀딩컴퍼니	436	AP시스템	-203
파라다이스	425	솔리드	-168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14(금)	4/17(월)	4/18(화)	4/19(수)	4/20(목)
외국인	4,731.2	-749.1	-333.6	-75.5	-114.6	9.8	-226.2	72.9
기관계	-4,466.7	481.2	662.7	22.8	266.6	38.5	110.4	224.4
(투신)	-2,670.8	-162.8	-76.8	-26.6	7.7	8.9	-0.3	-66.6
(연기금)	949.0	109.6	45.2	62.4	18.8	-85.9	-51.3	101.1
(은행)	-370.5	-16.3	17.2	-1.9	14.8	1.3	-1.8	4.7
(보험)	-431.9	3.2	7.4	-13.0	-2.7	12.7	-2.2	12.6
개인	-2,635.5	50.8	-324.7	44.4	-161.0	-48.2	115.9	-275.9
기타	2,370.9	217.1	-4.4	8.3	9.0	-0.1	-0.1	-21.4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4/13(목)	4/14(금)	4/17(월)	4/18(화)	4/19(수)
KOSPI	1,961.3	2,026.5	2,149.2	2,148.6	2,134.9	2,145.8	2,148.5	2,138.4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3,434.8	23,084.4	22,423.6	22,710.2	23,272.5	23,434.8
(증감액)	6,853.1	58.8	-22,754.4	940.8	-660.8	286.6	562.3	162.3
(회전율)	28.8	24.8	36.2	35.5	30.5	30.2	33.0	36.2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19,420.2	972.3	-614.7	156.4	604.2	-126.5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3,290.0	3,267.6	3,279.7	3,276.0	3,279.7	3,290.0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3,926.9	3,955.8	3,953.3	3,955.5	3,930.4	3,926.9
미수금	151.0	125.6	105.6	125.8	108.9	107.3	103.9	105.6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4/12(수)	4/13(목)	4/14(금)	4/17(월)	4/18(화)
전체 주식형	69,056	-5,129	-131	-48	-92	-105	29	55
(ex.ETF)		-3,520	-38	-14	-26	-47	4	40
국내주식형	51,747	-4,603	-121	-36	-81	-117	27	89
(ex.ETF)		-3,028	-56	-2	-15	-59	2	47
해외주식형	17,309	-525	-10	-12	-11	12	2	-33
(ex.ETF)		-492	17	-12	-11	12	2	-6
주식혼합형	7,947	-134	30	2	8	-8	4	12
채권혼합형	23,898	-2,633	-242	104	-3	-82	-33	-18
채권형	102,609	-1,758	-457	14	293	55	-331	-526
MMF	135,390	30,604	17,073	1,149	-191	1,756	-302	82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14(금)	4/17(월)	4/18(화)	4/19(수)	4/20(목)
한국	4,060	-659	-293	-66	-101	9	-198	64
대만	5,267	-114	-408	-52	1	4	-360	-
인도	6,436	-263	-136	-	-10	-126	-	-
인도네시아	1,242	619	125	-	67	58	-	-
태국	175	-10	-82	-	-49	-21	-11	-
남아공	-2,516	-63	7	-	-	0	7	-
필리핀	-181	168	-12	-	-2	-4	-6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6년말	4/14(금)	4/17(월)	4/18(화)	4/19(수)	4/20(목)
회사채 (AA-)	2.14	2.19	2.19	2.19	2.18	2.19
회사채 (BBB-)	8.27	8.41	8.40	8.41	8.40	8.41
국고채 (3년)	1.64	1.68	1.67	1.68	1.67	1.67
국고채 (5년)	1.80	1.86	1.85	1.85	1.83	1.84
국고채 (10년)	2.08	2.19	2.17	2.17	2.14	2.14
미 국채 (10년)	2.56	2.24	2.25	2.17	2.21	-
일 국채 (10년)	0.06	0.01	0.01	0.00	0.01	-
원/달러	1,210.50	1,140.00	1,137.70	1,142.40	1,140.20	1,139.80
원/100엔	1,030.04	1,049.43	1,049.44	1,050.87	1,048.85	1,045.40
엔/달러	117.52	108.63	108.41	108.71	108.71	109.03
달러/유로	1.05	1.06	1.06	1.07	1.07	1.07
DDR3 1Gb (1333MHz)	1.15	1.20	1.20	1.20	1.20	-
DDR3 2Gb (1333MHz)	1.50	1.84	1.84	1.84	1.84	-
NAND Flash 16Gb (MLC)	1.87	2.18	2.18	2.18	2.21	-
CRB 지수	193.97	189.30	188.93	188.08	185.44	-
LME 지수	2,663.2	2,773.3	2,773.3	2,708.5	2,718.2	-
BDI	961	1,296	1,296	1,294	1,278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53.18	52.65	52.41	50.44	-
금 (달러/온스)	1,131.35	1,284.15	1,284.15	1,278.95	1,279.0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0	11	12	13	14
美> 앨런의장 연설 日> 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2813.6, 2512.9, 65.5)		韓> 3월 실업률 (4.2%, 3.8%, 4.0%)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5%, n/a, -1.6%) 中> 3월 CPI YoY (0.9%, 1.0%, 0.8%) 3월 PPI YoY (7.6%, 7.5%, 7.8%) 日> 3월 PPI YoY (1.4%, 1.4%, 1.0%)	韓> 읍선만기일 금융통화위원회 (1.25%, 1.25%,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234) 中> 3월 수출 YoY (16.4%, 4.3%, -1.3%)	美> 미국 휴장(Good Friday)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98.0, 96.5, 96.9) 3월 CPI MoM (-0.3%, 0.0%, 0.1%) 3월 소매판매 추정 MoM (-0.2%, -0.2%, 0.1%) 日> 2월 광공업생산 MoM (3.2%, n/a, 2.0%) 유럽> 유럽 휴장(Good Friday)
17	18	19	20	21
中> 1Q GDP YoY (6.9%, 6.8%, 6.8%) 유럽> 영국,독일 휴장(Easter Monday)	美> 3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215, 1250, 1288) 3월 광공업생산 MoM (0.5%, 0.5%, 0.1%)	美> <b>베이지북 발표</b>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8%, n/a, 1.5%) 유럽> 3월 CPI YoY (1.5%, 1.5%, 1.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40, 234) 3월 선행지수 (n/a, 0.2%, 0.6%) 유럽> 4월 소비자대지수 (n/a, -4.8, -5.0)	美> 4월 마켓 제조업 PMI (n/a, 53.5, 53.3) 3월 기존주택매매(백만) (n/a, 5.60, 5.48) 日> 4월 닛케이 PMI 제조업 (n/a, n/a, 52.4) 2월 3차 산업 지수 MoM (n/a, 0.3%, 0.0%) 유럽> <b>프랑스 1차 대선(23일)</b> 4월 마켓 제조업 PMI (n/a, 56.0, 56.2)
24	25	26	27	28
	美> 소비자기대지수 (n/a, 124.0, 125.6)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90, 592)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韓> 1Q GDP YoY (n/a, n/a, 2.4%)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3월 내구재 주문 (n/a, 1.0%, 1.8%) 3월 도매 재고 MoM (n/a, n/a, 0.4%) 유럽> <b>ECB 기준금리결정</b> (n/a, n/a, -0.4%) 소비자기대지수 (n/a, n/a, n/a)	美> 1Q GDP YoY (n/a, 1.5%, 2.1%) 日> 광공업생산 MoM (n/a, n/a, 3.2%) 3월 실업률 (n/a, n/a, 2.8%) 3월 CPI YoY (n/a, n/a, 0.3%) 유럽> 3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4.7%)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